

## CA주 법원, 맥아더 목사에게 2주간 실내 예배 허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존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가 주장해 온 '실내 예배'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를 권리'를 인정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5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제임스 살판트 판사는 LA시가 맥아더와 교회측에 헌법이 보장하는 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참모이자 교회측 변호를 맡은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이 "역사적 승리"이며 "교회가 필수적임을 인정한 캘리포니아 법원(FIRST CA Court to recognize #ChurchIsEssential!)"이라고 남겼다.

법률 고문단체인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는 CP에 보낸 성명서에서 "이것은 시가 교회 예배 중단을 서두른 조치보다 더욱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에 따르면 법원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맥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예배 모습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페이스북

아더 목사와 교회는 공청회가 열리기 전 2주동안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맥아더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것은 (교회 문을) 열고서 우리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이 정당함을 입증한 것"이라며 "우리가 반항적이거

나 비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닌,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제약에 맞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있겠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와 교회는 코로나 19 규제를 위해 교회를 폐쇄하라는 캘리포니아 주와 LA시의 요구가 불합

리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3주간 실내 주일 예배를 고수했고 주 정부는 두 번에 걸쳐 교회 폐쇄를 명령했다.

이에 이달 12일 맥아더 목사와 교회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날에는 LA시가 교회에 접근 명령을 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Edifi With Billy Hallowell' 팟 캐스트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곳에서 50년을 살았고 교회는 63주년을 맞았지만, 주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라는 어떤 식의 명령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망자 예측 통계에 대해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잠시 (현장예배를) 멈추게 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가 바이러스가 발생한 당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몇 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나, 이후부터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 정부가 교인들의 모임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교회 예배를 재개한 것으로 밝혔다.

최근 낸 고소장에서 맥아더 목사는 주 정부의 제한 조치가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대규모 인종 차별 시위 집회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유진 기자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저소득층에 총 1억 달러 렌트비 무상 지원

LA COUNTY COVID-19 RENT RELIEF  
 VISIT 211LA.ORG OR CALL 2-1-1  
 ACCEPTING APPLICATIONS AUGUST 17 TO AUGUST 31  
 Eligibility based on income  
 Financially impacted by the COVID-19 pandemic  
 Open to LA County renters, with the exception of City of Los Angeles residents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LA시 외곽 지역 세입자를 위해 총 1억 달러를 지원하여 렌트비를 무상으로 보

조한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 엘에이 카운티 중

LA시 외곽 지역 세입자 대상 권익 단체 KRC액션,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엘에이 카운티 중간 소득 30% 또는 50% 이하 우선 선정

간 소득의 30% 또는 50% 이하 가정은 우선 순위로 선정되며, 저소득층 가정은 최대 1만 달러에서 \$7,500 달러까지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카운티 렌트비 보조는 이민 신분에도 상관없이 지원되며 1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신청은 8월 17일부터 31일 까지 웹사이트

(<https://www.211la.org/lacounty/rentrelief>)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권익 단체 KRC액션 ([www.krcinaction.org](http://www.krcinaction.org))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의 무상 렌트비 보조 신청을 돕는 시(Carson City) 야외 주차장 (510 East Sepulveda Blvd. Carson, CA 90745)에서 실시한다.

KRC액션은 오는 8월 21일(금)과 8월 22일(토), 8월28일(금)과 8월29일(토)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일에 걸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신청을 도와준다.

KRC액션은 또 렌트비 보조 신청 외에도, 센서스 신청 지원, 우편투표 및 선거 후보자 안내, 유권자 등록 등의 지원 활동도 펼친다.

자세한 문의는 KRC액션 이메일 [KRCinAction@gmail.com](mailto:KRCinAction@gmail.com) 또는 213-434-4267로 전화하면 된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mailto: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Brake Service  
 Tune-Ups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http://www.gs.edu/keb)

# 다우니 제일교회 안수집사, 권사 등 총 6명 직분자 세위



다우니 제일교회 임직식

다우니 제일교회(담임 안성복 목사)는 지난 2일 안수집사, 권사 임직 및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6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예배는 황천영 원로 목사가 '교회의 지도력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했으며, 이내운 집사가 답사를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실내 대면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 야외 친교장에서 40여 명의 교

인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한편 다우니 제일교회는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임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김동욱 기자

**임직자 명단**  
안수집사 임직 : 고석기  
안수집사 취임 : 이내운, 임우성  
권사 임직 : 김현숙, 박연옥, 임경

# 만남의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밸리, LA 지역 교회에 총 1만달러 지원

놀스릿지에 소재한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가 코로나 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밸리 지역교회와 LA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선다.

만남의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 10곳을 선정해 각 1천 달러씩, 총 1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서 작성 및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 [www.churchmannam.com](http://www.churchmannam.com)

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8월 17일(월)부터 9월18일(토) 오후 5시까지이다.

만남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와 이웃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교회가 힘을 다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COVID-19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지원 프로젝트**

만남의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밸리와 LA 지역 미자립 10개 교회를 지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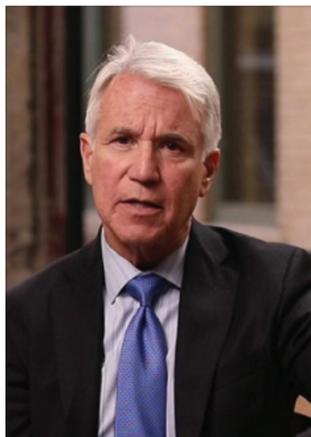
지원대상: 미자립교회, 밸리와 LA 지역 교회  
지원내용: 10개 교회 \$1,000~1회 지급  
신청기간: 8월17 일(월) ~ 9월12일(토) 오후 5시  
신청방법: [www.churchmannam.com](http://www.churchmannam.com) 온라인 신청

# 조지 개스컨 “공정한 경찰 집행 및 주민 권익과 인권 존중 할 것”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 총장에 출마한 조지 개스컨(George Gascon)후보자는 지난 15일,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과 화상 회의를 갖고 공정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필요와 제안을 수렴했다.

쿠바에서 태어나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조지 개스컨 후보는 로스앤젤레스 시 동쪽 쿠다히(Cudahy city) 시에서 청년기를 보냈으며, 17세에 경험한 엘에이 경찰의 인종 차별적 검문으로 공정한 사법기관에 복무하는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4년 미군 복무를 마친 후, 엘에이 경찰이 되어 28년 동안 엘에이 경찰국에서 경험을 쌓았고, 이후 아리조나 매사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찰국장으로 일했다. 또



조지 개스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 총장 후보자 ©페이스북

한 샌프란시스코의 검찰총장으로 9년 간 일을 한 후 최근 가족이 있는 엘에이 카운티로 돌아와 카운티 검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 총장 후보자, 한인 단체장들 제안 수렴

찰 총장직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지 개스컨 후보자는 “공정한 경찰 집행 및 정의로운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위해 40년 이상을 현장에서 노력 해 왔다”며 “주민들이 피부 색깔 및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권익과 인권을 존중 받도록 사법 제도를 만들고 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으로 일 했을때 아시아인 아메리칸 주민들이 혐오 범죄나 인종차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임명하여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도록 노력했고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을 개설

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 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다”며 “지역 사회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좀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스티브 강 (KYCC & 엘에이 한인회 이사), 알렉산드리아서 (KIWA), 엔젤라 오(KRC), 캐터린 엄 (KFAM), 도 김 (KW Lee Center), 데브라서 (CPAF), Rae Jin(YMCA Koreatown), 임혜빈 (FACE) and Paul Song (Healthcare4all) 이 참여했고, 커뮤니티 소개, 커뮤니티의 도움 필요 및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을 전달했다. 조지 개스컨 후보자는 한인 사회 구성원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며 제안은 이메일 [djyoon70@gmail.com](mailto:djyoon70@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엘에이 카운티 검찰국은 미국에서 가장 큰 검찰 수사 관할권을 포함하며, 1천 여명의 검사관 변호사, 300여명 이상의 조사관 등 모두 2천 1백 여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카운티 검찰국은 매년 평균 71,000 건의 중범죄, 112,200 건의 경범죄 건을 조사한다. 또한 가정 폭력, 주요 중범죄, 인신 매매, 조직 범죄, 소비자 사기, 언라인 범죄, 마약 범죄, 보험 사기 등의 포괄적인 범위의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배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http://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www.marhlaw.com**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은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mailto: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샘 신 목사, LA 코리아 타운에 다민족 교회 세운다

“모든 인종이 하나 돼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인종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어가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의 다리 역할로 커뮤니티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샘 신 목사가 오는 9월부터 LA 코리아 타운에서 다민족 교회를 시작한다.

신 목사는 교회 이름을 ‘오직 예수 선교교회(Only Jesus Mission church)’라고 정하고 한어권, 영어권, 스페니쉬권 회중이 하나 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이끌 계획이다.

15세로 전직 경찰이었던 신 목사에게 ‘다민족교회’는 언제나 그의 가슴 한 켠에 소망과 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LA 폭동의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눈에 비친 인종간 갈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리고 사건 해결을 위해 위장 잡압해 들어간 교도소에서 ‘죄인’이라 명명된 사람들이 인종을 넘어 하나로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저는 바울처럼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수사를 위해 들어간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



다민족교회 오직 예수 선교 교회(Only Jesus Mission church) 샘 신 목사 ©기독일보

부터 잘 살면 되지 이런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비판했지요. 그때까지만도 저는 한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도소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인종을 초월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광경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 됨의 해답을 얻었지요.”

다민족교회를 시작하는 샘 신 목사에게는 각오가 있다. ‘누구든 차

별하지 않고 다가가며,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어떤 세속적 이익과도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의 진리만을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신 목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빛을 사회에 전하고, 소금의 역할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미국 내에서도 크게 성장한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가 이제는 주류 사회로 문을 열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미국을 다시 복음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다민족교회를 통해 다민족 사회와 접촉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계획이다.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임을 확신한다’는 그의 얼굴은 다민족 연합 사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샘 신 목사는 51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기총(회장 민승기 목사)의 총무로도 사역하고 있다. 오직 예수 선교 교회에 대한 정보는 213-215-6029로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다민족교회 오직 예수 선교 교회(Only Jesus Mission church) 사역자들. 왼쪽부터 샘 신 목사(한어), 사무엘 주니어 목사(영어), 빅터 목사(스페인어)

한인가정상담소, 코로나 19 기금 모금 온라인 갈라 개최

창립 37주년 기념 온라인 모금 행사, 9월 10일(목) 오후 7시

한인가정상담소(소장대행 캐서린 염)가 오는 9월 10일(목) 오후 7시, ‘제 37회 코로나 19 기금모금 온라인 갈라’를 개최한다.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올해 갈라는 ‘호프 버추얼 갈라(Hope Virtual Gala)’를 주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로 치러진다. 이번 갈라는 줌 웹이나로 라이브 진행되며, 행사 홍보 페이지에서 참가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행사는 코메디언 PK가 진행을 맡아 미 전역에서 활동중인 뮤지션과 배우, 코메디언 등이 참여해 각종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시청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부하기’를 클릭하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기부

에 동참 할 수 있다.

모인 기부금은 한인가정상담소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생존자나 위탁가정 그리고 싱글맘 등의 주거비 지원 및 필수품 구입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소장대행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7

년간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고, 한인사회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례 기금모금 행사는 블루윌드 파운데이션, 알버트 김 파운데이션, 유진 김 성형외과, 차찰리우드 병원 등이 후원한다.

Advertisement for 'Righteous Outlaw' book launch event featuring Pastor Sam Shin. Includes book cover and event details.

Advertisement for 'HOPE 2020 VIRTUAL BENEFIT' fundraiser on September 10, 7PM PST. Features comedy, entertainment, and stories of hope.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sale by Puente Hills Hyundai, featuring a silver SUV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ul Lee.

Large advertisement for immigration lawyer David S. Lim. Includes contact info, office address, and a list of services like investment visas, employment visas, and citizenship.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0

“전 세대 참여를 통한 이슬람선교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읽고(1)

필자는 이번 주에 Fuller 신학교에서 국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J. Cho 목사에게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집을 선물로 받았다. 그 논문의 제목 그대로를 이번 칼럼 제목으로 삼았다.

이 연구 논문의 부제는 '인터넷의 Field Operation 사역을 중심으로'이다. 한국에서 시작해 20년 전 미주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성장을 이루어가며 다민족 교회로도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인터넷 선교회의 프로그램과 사역을 직접 참여하며 경험한 후에 앞으로의 이슬람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학문적으로 연구 발표한 것이다. 필자는 그의 논문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영적 희열을 느꼈다. 그간 인터넷 선교회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던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필자가 아는 Cho 목사는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목회자이다. 장로교의 기성교단에서 훈련받고 오랜 기간 사역한 기본과 영적 중심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신뢰감 있는 일선 목회자가 경험한 한 선교단체에 대한 논리적인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옮기면서 그의 논문에 응원을 보낸다. 다음은 그의 논문을 요약하여 에세이 식으로 옮겼다.

“2020년 현재 인구 증가율 대비 무슬림의 세계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에 비해 기독교의 증가율은 낮은 편으로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교회의 최고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기독교 국가로 자처하던 유럽의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교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인식 가운데 이슬람은 과격한 테러단체들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기에 선교 대상 지역에서 은근히 회피하며 소극적 자세를 갖는 형편이다.

이런 시기에 이슬람 지역을 선교 주력 지역으로 삼고 최전방 선교를 담당하는 한인 선교단체가 인터넷 인터넷내셔널이다. 37년 동안 성장하여 이제는 다민족 국제 선교단체로 발돋움하며 사역을 왕성하게 수행하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이 선교단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었다. 그러던 중 가깝게 지냈던 목회자 동료들이 먼저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단기선교를 이슬람권 나라들로 다녀온 후 간증과 권유를 통해 무작정 비판하기보다 한번 알아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비전스쿨을 참여했다. 10주간 매주 1회씩 갖는 과정은 짧은 시간 안에 예배와 강의 및 간증, 정보, 소식 등을 접하며 그동안 가려졌던 이슬람권 선교 사명이 열리기 시작했다. 강의는 일선 선교사가 직접 선교지 소식 및 영적 도전을 주는 데 지금까지 접했던 다른 선교사들과는 차별이 되었다. 예를 들면 평신도 사역자들, 헌신된 자세, 강의 수준 등이 놀라울 정도였다. 가장 크게 바로 잡게 된 잘못된 선입견은 무조건적으로 저돌적이고 예수 천당만 외치는 선교사들의 강의를 통해 이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이슬람 선교 전략과 전술 그리고 영혼 사랑과 이슬람권 문화 이해, 그들을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형태로 여기는 점 등 놀라운 수준의 커리큘럼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교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하는데 충분했다. 10주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직접 이슬람 나라로 가는 선교를 나는 경험하게 되었다. 선교지는 더욱 놀라웠다. 처음 선교를 접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현지 장기선교사팀이 철저한 준비를 해 두었고 공항에 도착부터 2~3주간의 선교 마지막까지 전문 선교사들의 섬김과 지도는 어디에도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준이었다. 현지 문화 이해와 복음 언어를 가르치는 데 하루 혹은 이틀간 집중해서 가르친 후 현지 선교를 나간다.

이미 그때는 나의 영적 능력이 갖추어져서 두려움보다는 담대함과 도전감이 더욱 강성해졌다. 그리고 2, 3명의 팀을 정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필드로 나가 영혼들을 만나 교제하고 나눔을 갖게 된다. (다음 주에 계속)

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7) 인내

끈기와 근성(Grit)을 기르자!

중국의 목민심서라 불리는 '육리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나라 변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우산 만드는 법을 익혔지만 큰 자물이 들어 우산을 사는 사람이 없자 바로 우산 만드는 일을 포기하고 물 퍼는 양수기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어렵게 양수기 제조기술을 익혔지만 큰 장마가 와서 다시 우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무렵 사방에 도적떼가 일어나 군복과 무기가 모자라게 되자 그는 무기가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끝내 망했습니다. 그는 인내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수시로 흔들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학업 지진아였습니다.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 없는 아이'로 평가 받았습니. 발명왕 에디슨의 답임은 그를 '교사생활 12년에 이 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라 말했습니.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두번 다닌 열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겼습니.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들은 주위의 잔인한 혹평을 오히려 자극제 삼아 매진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끈기로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살피는 그릿(GRIT)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입니다. 거듭되는 역경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순간에 이루는 과업은 재주와 재능만으로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이루는 의미 있는 성취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의 책 '그릿(GRIT)'은 그 자체가 '그릿' 즉 끈기로 완성된 책입니다. 저자는 끈기(GRIT)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어머니마한 사례 수집과 연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와 조사를 했습니다. 끈기로 이 책을 완성한 것입니다.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미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예로 들어 끈기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미 육사(West point)는 해마다 1만4000여명이 지원하고, 그중 1200명 정도가 입학허가서를 받습니. 하지만 입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사관학교를 중퇴한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릿(GRIT)'이라는 것입니다.

그릿(Grit)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가장 큰 요인은 지능도, 성격도, 경제적 수준도, 외모도 아닌 '그릿'입니다. '불굴의 의지' '투지' '집념' '끈기'의 의미를 갖는 그릿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GRIT을 어떻게 기를까요? 앤젤라는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을 통해서 Grit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첫째, 관심입니다. 자신의 삶과 하는 일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꼭 빠져야 합니다. 목표에 관심을 가지면 열정이 생깁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열정이 없다면 진정한 관심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정당한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아 부으면 GRIT이 성장합니다.

둘째, 연습입니다. GRIT은 마음과 정신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근육강화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과업에 집중하여 GRIT으로 성공한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다음엔 중장기의 과업을 설정하고 그 과업에 완수하기 위해 집중하고 불굴의 투지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작은 과업들을 성취함으로써 GRIT을 강화시키고, 다시 중형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GRIT의 강화를 도모하여 더 큰 과업들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그릿을 강화해 가는 연습의 과정입니다.

셋째,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는 그릿(GRIT)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인생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그릿(GRIT)을 강화시킵니다. 그릿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취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목적은 열정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좋은 목적은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그릿(GRIT)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릿 강화를 위해 좋은 목적은 이타적인 목적입니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릿은 건강한 목적, 이타적 목적을 통해 강화됩니다.

넷째, 희망입니다. 그릿(GRIT)의 강화는 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릿(GRIT)은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또 그릿은 희망을 낳습니다. 그릿(GRIT)은 희망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의 삶에 희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롬 그루프먼은 '희망의 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병마와 싸운 환자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희망의 힘을 강조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희망이 끈기와 성공을 이끕니다.

최근 행복학에서는 그릿(GRIT)을 말합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요 이웃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그릿(GRIT) 즉 끈기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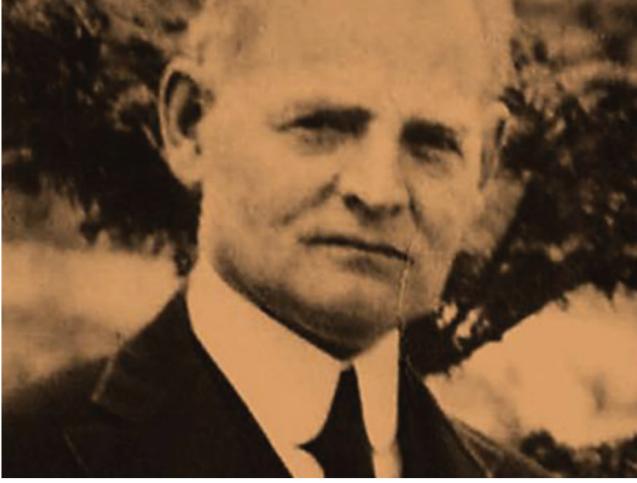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 (15) 하디 선교사와 원산 부흥운동

로버트 하디 선교사(1865-1949)

### 하디 선교사와 원산 부흥운동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3차례의 부흥운동이 주어졌다. 1903년의 원산부흥운동,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 1909년의 백만구령운동이 그것이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대부흥운동이었고, 원산부흥운동은 평양대부흥운동의 모체 역할을 했으며, 백만구령운동은 평양대부흥운동의 후속활동 같은 성격을 가진 대대적인 전도운동이었다. 이번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원산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평양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싶다.

### 한국 선교의 시작과 당시의 민족적 위기 상황

한국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런던대학을 갓 졸업한 웨일즈 출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23세에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도착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후 조선말을 배워 조선 선교를 준비하다가 1866년 8월 미국상선 General Sherman을 타고 평양에 통역관 신분으로 갔다가 성경을 나누어주고 순교하게 된다. 그의 순교소식은 영국과 미국의 선교보고지에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이 서구 기독교계에 알려져 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정식 첫 선교사로 들어온 이후 계속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조선정부가 이를 평정하기 위해 청군을 끌어들이자 일본이 조선을 선점해 대륙정복의 전초기지를 삼기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켜 일본이 승리한다. 러시아가 남하정책과 부동항을 얻기 위해 조선을 노림으로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게 된다. 1905년에는 일본이 명성황후까지 죽이면서 한반도 지배권을 강화했다.

###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

당시에 중국 의화단사건(1899-

1901년 기간에 청나라에서 일어난 외세 배척운동으로 민간 결사대들이 일어나 외래적인 것들을 파괴하고 많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다)을 피해 원산에 와 있던 남감리교 여선교사 Mary White 과 캐나다장로교 여선교사 Louise McCully 두 여선교사가 답답한 조선을 위해, 조선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부흥의 불길기 점화 된다. 이 두 선교사의 기도 모임의 소식이 알려지자 원산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이 기도 대열에 참석 하게 되었다.

1903년 8월 24일-30일 기간에 원산지역 선교사님들은 공개적 기도 집회를 열고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으로 원산에 파송되어있던 하디 선교사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필수 요소들"에 대해 3회의 강의를 부탁한다. 당시 하디는 학력으로나 직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노력에 비해 열매가 초라한 실패한 선교사였다.

### 원산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하디 선교사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 1865-1949, 한국어름 하리영)는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에 잠시 교사로 일했으나 대학 2학년 때 SVM운동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다. 의사가 되어 병든 이웃들을 돕고 싶어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 고 삶과 비전을 나누는 동지 마가렛 켈리와 결혼한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선교사로서 토론토 지역 의대생들로 구성된 기독교청년회의 파송을 받아 8년 계약으로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오게 된다. 부산지역과 서울 제중원, 다시 부산에서 의료선교사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8년 계약이 끝나자 남감리교 원산 선교부의 초청을 받아 남감리교 선교사로 원산에서 사역하게 된다. 원산에 주재하면서 의료선교사역과 함께 강원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데, 1901년에 15명에게 세례를 주고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지경터교회를 세웠고, 같은 해 10월에 양양교회를 세웠고, 이어 강릉중앙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사역의 열매들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1903년 8월에 열리는 원산 주재 선교사 기도회의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누가복음 11:13 말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사역 실패의 원인이 성령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령충만을 경험하고 회개하던 하디는 기도회 강연시간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 사역 실패의 원인인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했다.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심에 따라 "명문 토론토 의대 출신이라는 학력과 의사라는 신분에 대한 교만함, 백인 우월주의,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했던 오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했던 영적 무지와 미숙과 어리석음"등을 눈물로 모두 자백함으로 선교사님들의 기도회는 내내 눈물의 회개로 이어졌다.

그 다음 주일에 자신이 맡고 있던 원산감리교회의 주일예배에서 또 다시 자신의 교만함, 조선인들을 무시함, 백인과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한 우월감, 성령충만 못함을 솔직히 눈물로 고백한다. 그러자 하디의 회개가 성도들의 공개 회개로 계속 이어져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통회를 동반한 부흥이 원산 전역으로 확산 되게 된다.

전에는 조선인 환자들이 하디의 거만함과 쌀쌀함 때문에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참고 하디에게 치료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은혜받은 후의 하디는 표정과 성품과 어투가 완전히 변해 하디가 환자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나갔다고 한다. 자신이 인도하는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자 하디에게 실패감을 안겨주었던 지경터교회를 찾아가 12일간 집회를 인도했다. 원산감리교회에서 처럼 자신의 눈물의 회개가 있었고, 원산감리

교회에서 처럼 성도들의 참회가 동반된 영적각성이 일어남으로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1904년에 하디는 서울과 개성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모두 똑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와 회개를 통한 각성운동이 일어났다.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하디는 서울, 제물포, 평양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심으로 부흥이 언제나 그를 따라 다녔고 가는 곳마다 회개와 각성운동이 계속 이어졌다.

안식년에서 돌아와 1906년 8월 26일-9월 2일 기간에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평양 선교사 가족사경회가 열렸다. 하디는 자신이 변화되기 전의 교만과 성령에 대한 무지,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과 회개, 그리고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한 하디의 성령계 사모집인 설교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다.

장대현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Graham Lee(이길함) 선교사와 로제타 셔우드 홀과 그녀의 아들 12살의 셔우드 홀등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길함 선교사가 섬기는 장대현교회는 이후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심교회가 되었고, 어린 셔우드 홀은 이 때 큰 은혜를 받고 사업가의 꿈을 버리고 부모님처럼 의료선교사가 되어 한국에서 사역을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후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와 해주에 조선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세워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렸다. 우리가 어려웠 때에 구입했던 크리스마스 선물도 셔우드 홀이 결핵환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

### 존스톤 목사의 방문과 도전과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회

곧 이어 1906년 9월에 미국 북장로교단 선교위원이자 부흥사인 Haward Johnston 목사가 서울 선교사 사경회에 강사로 왔다. 그는 부흥운동이 불타고 있던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현장을 다녀와 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의 생

생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조선주재 선교사들과 조선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큰 부흥을 사모하라고 강한 도전을 주었다. 서울 선교사 사경회에서 돌아온 20여명의 평양주재 선교사들은 평양에도 그런 대부흥이 임하도록 매일 정오기도회를 곧 바로 시작한다.

존스톤 목사는 이어 평양을 방문하여 이길함 선교사가 담임하는 장대현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한다. 이때 "조선에 부흥이 임하도록 누가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처럼 기도의 불씨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겠느냐" 고 도전했다. 이 때 길선주 장로가 손들고 "내가 조선의 이반 로버츠가 되고 싶소"하고 일어섰다. 존스톤 목사는 장차 조선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길선주 장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었다.

이리하여 평양에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회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매일 정오에 열렸고, 길선주 장로가 중심이된 매일 새벽에 열려 평양에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향이 올려졌다.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평양대부흥'이라 부르는 대부흥을 보내시게 된다.

한국에 부어주신 대 부흥은 이렇게 두 여성 선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오늘의 미국의 부흥을 위해 두 여자 선교사와 같은 기도를 시작하겠는가?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순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b>IRUS</b>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mp;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정회원</li> <li>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li> <li>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li> <li>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li> <li>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li> </ul>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b>미성대학교</b>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정회원, ATS 준회원</li> <li>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ESL, TESOL</li> <li>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li> <li>안주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li> <li>목회학사 과정 신설</li> <li>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li> </ul> <p><b>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b>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com</p>	<p><b>MIDWESTERN</b>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amp; ATS 인가)</li> <li>-100% 한국어</li> <li>-I-20 발급</li> <li>-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li> </ul>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p>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b>월드미션대학교</b>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HE, ATS 정회원</li> <li>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li> <li>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li> <li>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li> <li>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li> </ul>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b>복음대학교</b>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CS 정회원 인준</li> <li>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li> <li>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li> <li>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li> <li>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li> <li>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li> </ul>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GATEWAY SEMINARY</b>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b>학위과정</b>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EDU / KEB</p>	<p><b>그레이스 미션 대학교</b>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b>Azusa Pacific Seminary</b>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b>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b> 입학문의 ☎T:(626)857-2200</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b>광고 및 후원 문의</b></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친낙태 성향으로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오는 11월 대선의 러닝 메이트로 지명했다. 미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 의원은 조 바이든 후보와 함께 낙태 운동가들 사이에서 ‘친낙태’ 성향을 가진 팀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고 1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최고의 공직자 중 한 명인 카말라 해리스를 나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고 발표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글을 올렸다.

55세인 해리스 의원은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이민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 Facebook

이민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

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검사를 역임했고 주 법무장관을 지낸 후 2017년 상원 의원에 선출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출마했지만 지난해 12월 중도 하차했다.

해리스 의원은 러닝메이트 지명 발표가 공개된 후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은 우리를 위해 일생을 보내왔기 때문에 미국인을 통합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우리의 이상에 부합하는 미국을 건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진적인 낙태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는 해리스 의원은 낙태 반대 운동가들과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CP에 따르면 해리스 의원은 미국

의 거대 친낙태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의 관계와 낙태 반대 운동가 기소 경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카말라 해리스는 세금지원을 통한 임신 말기 낙태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라며 “이는 수백만의 무소속 지지층과 평범한 민주당원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인이 거부한 의제”라고 ‘수전 B. 앤서니(SBA) 리스트’ 대표인 Marjorie Dannenfelser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친낙태 성향을 가진 해리스를 선택한 사실에 놀랍지도 않다. 그들이 선출된다면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낙태 반대 정책과 하이드 수정안

(Hyde Amendment)과 같은 정책을 되돌릴 것이다. 그들은 대법원에 낙태 찬성 이데올로기를 쌓아 여러 세대에 걸쳐 낙태를 반대하는 대의를 되돌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가 신앙 기반 옹호 단체인 가톨릭 보트(CatholicVote) 브라이언 버치 회장은 “바이든 후보가 임신 말기 낙태와 같은 급진적인 낙태를 지지하는 해리스 의원을 선택함으로써 ‘가톨릭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적절할 때마다 버려 질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팀은 이 나라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협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Pixabay

## 美 기독교인 절반 이상 “선행 통해 구원 얻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 33%에 그쳐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 성인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미국에서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의하면,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Arizona Christian University) 문화연구센터에서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이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3%였다. 응답자 중 자신을 ‘거듭난 기

독교인’이라고 밝힌 모든 이들은 이 진술에 동의했으며,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이들은 72%, 오순절파라고 밝힌 이들은 55%가 이에 동의했다.

또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흘롱하거나 일생 동안 선한 일을 충분하게 할 경우 천국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데 48%가 동의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오순절파의 46%, 장로교의 44%, 복음주의 계열의 41%, 그리고 가톨릭의 70%가 이런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는 죽은 후 천국에 갈 것이라고, 2%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었다. 또 응답자의 63%는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떤 믿음을 갖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의 렌 먼실(Len Munsil) 총장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개인의 영혼 뿐 아니라 미국의 삶과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잠재적 파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실 총장은 “이는 교회를 비롯해 모든 영향력 있는 분야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말하고 가르치고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아메리칸 월드뷰 인벤토리 2020(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0)에 게재됐다. 강혜진 기자

## 美 캘리포니아 지방 검사 “주지사 명령 어긴 교회 기소 안할 것”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San Luis Obispo)의 지방검사가 예배 모임에 대한 주지사의 제한 명령을 불복종한 교회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덴 도우 지방검사는 예배, 찬양을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를 기소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예배 중 찬양 금지와 현장예배 중단을 연이어 명령했으며 이 조치에 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모임을 금지 혹은 제한하라는 주지사의 명령에 대해 캘리포니아 지역 일부 교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내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30개가 넘는 카운티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교회 예배 모임이 금지됐다. 해당 카운티의 가정에서는 10명 이상의 모임도 금지되어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 없게 됐다. 교회가 합법적으로 모임 수 있던 없든, 예배 중 찬양도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0개 카운티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지역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한 제한된 인원모임으로 모일 수 있다.

덴 도우 지방검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역’(sanctuary)임을 선언한다”면서 “법을 집행할 책임은 내가 가진 재량이다. 정당하고 정의에 이익이 되는 혐의만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덴 도우 캘리포니아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지방검사 ©Facebook

수정헌법 제 1조의 중요성을 언급한 독립기념일 연설을 공개했다.

도우 검사는 “2020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전능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 카운티와 우리 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우 검사는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석방된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존재한다”며 종교 행사에 참석한 자를 기소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받은 수만 명의 범죄자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있다”면서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교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면 그것은 ‘광기’의 정의가 될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을 실천하기로 선택한 교인을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은 내 사무실에서 심각한 불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예배 드리고 있는 미국 기독교인들

# 미국인 70%, “교회 예배는 개방돼야”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대다수는 교회가 다른 단체들과는 별개로 개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한적으로라도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성인 10,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교회가 현장 예배를 위해 개방 또는 폐쇄할 지에 대한 견해와 예배 관행에 대해 질문했다.

미국인 응답자의 79%는 종교 기관이 그들 지역의 다른 대규모 집회나 사업에 적용되는 동일한 의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 중 복음주의 개신교인이라 밝힌 응답자의 38%는 교회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퓨 리서치측은 “바이러스 일부가 종교 모임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예배 장소에 다양한 제한 사항과 수정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으며, 57%는 제한적으로라도 개방해야 한다, 13%는 팬데믹 이전처럼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제한적 개방이란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출석 인원 제한 등이 해당된다.

팬데믹 기간동안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흑인 개신교인이 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 개신교인 40%, 가톨릭 27%, 복음주의 개신교인 1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노래를 통한 감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공공 예배에서 찬양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 한달 동안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미국인은 72%인 반면,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자는 12%로 집계됐다. 그 중 현장 예배 참석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44%로 1위로 차지했고 가톨릭 교인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대다수 교회들은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들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하라는 주의 명령은 위헌이며 세속적인 단체에 비해 교회에 부당한 대우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네바다 주의 한 교회는 최근 카지노 사업장에는 50% 수용인원을 허용하면서 교회에는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주 정부를 고소했다. 사회적 지침을 준수해 온 다른 교회는 수용 면적의 50%, 최대 90명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주 정부로부터 거부당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지난달 교회들의 항소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주 정부의 명령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김유진 기자

# 미국 목회자들 “코로나 후 미국인들 더 깊은 영성 갈망”



©pixabay

미국 BaptistFootprints는 최근 남침례교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영성을 기르기 위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주 윌밍톤의 제1침례교회 제인 데이비스(Jayne Davis) 부목사는 “사람들이 신앙이나 삶의 목적에 대해 성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오늘날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 장소를 찾는 신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유행했던 제자 훈련 방식 등을 디지털로 옮기려는 시도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어 그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들이 영적인 실천과 그들의 삶을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또 계속된 사회의 불안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깊은 신앙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댈러스 심리학자 캐서린 켈러(Kathryn Keller) 박사는 전염병, 계속된 사회 불안, 광범위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존재의 불안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 치료사인 그녀는 특히 “미국 백인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자신의 백인 특권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는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결과, 사

람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목회자의 영적 사역과 프로그램을 더욱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휴스턴에 본부를 둔 기독교 영성센터의 마이클 주니어(Michael Sciretti, Jr.) 목사는 “이러한 유행병 속에서 목상이나 사색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현장의 신앙공동체와 프로그램에서 분리된 이후로,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문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존스 크릭 침례교회의 데이비드 화이트(David White) 협동목사는 “이 시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성을 위해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고 있음을 발견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주일 학교 수업, 성경 공부 그리고 다른 과정들은 온라인 환경으로 옮겨져 직접적 모임보다 방해 요소가 적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 목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면할 만한 좋은 도전”이라며 “이전에 우리가 상당한 선물을 받았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BaptistFootprints는 많은 침례교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소셜 미디어와 문자를 통해 말씀과 기도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영성 형성을 돕는 방식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신도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평신도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침례예배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인2세를 영육하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우회)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모임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델만예배(소매점)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임과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입니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아침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리제물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10:00,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 찬양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84 Hinsdale St., Northridge, CA 91329  
MP리제물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10:00,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 찬양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84 Hinsdale St., Northridge, CA 91329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예배 오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미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오픈도어 “북한 홍수와 코로나19로 최악의 식량난 우려”



북한 아동의 모습 ©VOA

북한에서 올해의 장마는 대량 아사과 경제 위기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데 일조했던 1990년대의 홍수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남부 황해도와 북부 비농사 지역에 두 주 이상 폭우가 계속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농경지입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인도적 위기에 더해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싸움입니다.

남한과 접경지대에서 북한의 강수량은 423.9mm에 달했습니다. 평균보다 157%가 넘는 수치입니다. 북한 당국은 비로 인해 저수지가 흘러넘치고 댐 수문을 열게 되면서 당황해 있습니다. 수백 채의 집이 파괴되고 넓은 농경지가 잠겼습니다. 수만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계속되는 폭우와 태풍으로 최소한 540만 명의 집들이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의하면, 지난주 김정일이 방문한 홍수 지역의 주민들에게 비상 곡물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金正일이 방문한 지역에서 진흙을 밟지 않으려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적십자는 이재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긴급구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우려는 폭우가 올해 수확에 끼칠 피해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이미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올해 말까지 전 주민의 40%에 해당하는 1천10만 명을 구호할 37만4,000톤의 곡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추산했습니다. FAO는 가을 추수로 인해 이 수치가 감소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번 홍수들로 그 희망이 사그라

지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홍수 피해 지역에 구호품을 보내려고 하나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직면한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 국제적 구호가 이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도록 기도해주세요. 북한의 지도자가 북한 주민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북한의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남한이나 기타 국가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북한 내 가족들의 편지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남한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414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한 번에 보낸 평균 금액은 미화 2,460달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돈은 단지 가족들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탈북자 경제’의 일부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북한의 경제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고 많은 일반 주민의 생명이 불가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수백만 명의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주세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과 같은 필수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형제자매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영국 왕자비 메건 마클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 의지해”



지난 2016년 메건 마클 왕자비가 월드비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르윈다를 방문했다. ©월드비전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클 왕자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고백했다.

11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메건 마클은 최근 해리 왕자와의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전기인 ‘자유를 찾아’(Finging Freedom)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책을 집필한 오미드 스코비와 캐롤린 두란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메건 마클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에서 그녀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 따르면 메건 마클은 드라마 ‘슈츠’(Suits)를 촬영할 당시 세트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한다. 마클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드라마에서 레이첼 제인(Rachel Zane) 역을 맡았다. 해리 왕자와 결혼하면서 드라마 출연을 포기했다고 한다.

최근 출간된 이 새로운 전기에는 해리 왕자와의 결혼생활을 비롯해 왕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메건 마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해리 왕자와 함께 믿음의 여

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하나님, 교회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앙이 그녀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가정에 대한 믿음이다. 그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면서 “그것이 메건과 인생과 해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다”고 언급했다. 메건 마클이 침례를 받기 전 저스틴 웰비 센터베리 성공회 대주교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트레버 앵겔슨과의 첫번째 결혼이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메건 마클에게 이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두 사람은 회의를 통해 ‘깊밀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9월 21일 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s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내면의 부요를 추구하는 영성

내면의 부요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물질적 부요를 추구하기보다 내면의 부요를 추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부요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썰물의 때와 같습니다. 썰물의 때는 조용히 그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썰물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내면의 부요를 추구하는 영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첫째, 내면의 부요는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빌 4:11). 자족하는 법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빌 4:12). 자족의 비결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족의 비밀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 작은 즐거움, 소박한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잘못비교하면 비참해 집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됩니다. 자족의 비결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남아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족은 만족입니다. 자족은 충만한 느낌입니다. 자족의 반대는 불만입니다. 불만을 가질 때 불평하게 되고, 불평할 때 불행하게 됩니다. 자족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내면의 부요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지만 질투는 다른 사람의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가 겸손의 덕을 쌓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감

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성 훈련 중에 아주 소중한 훈련입니다. 날마다 감사한 일들을 표현하십시오. 감사 노트를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되면 감격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감사입니다(엡 5:18-20). 감사의 비결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부요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작은 것, 단순한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분들은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쓰지 않는 것은 감사함으로 나누어 줍니다. 너무 큰 것,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백을 즐기고, 적게 욕망함으로 자족할 줄 압니다. 소유보다 자유를 추구합니

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존재가 넉넉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내면의 부요는 나눔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절약은 중요하지만 인색한 마음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나눔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껍질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핍의식 때문입니다. 결핍의식을 갖게 되면 자꾸 쌓게 됩니다. 늘 불안합니다. 자신이 쌓아 둔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경계합니다. 스스로 벽을 쌓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 것을 빼앗아 갈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눔 줄 아는 사람은 풍부한 삶을 갖고 삽니다.

풍부한 삶은 하나님의 풍부하심에서 나온 의식입니다(빌 4:19). 하나님의 부요하심에서 나온 의식입니다(고후 8:9). 또한 풍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움켜쥐는 삶보다는 나눔의 삶이 행복을 불러 옵니다. 나눔의 차원은 다양합니다.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소중하게 배운 것, 깨달은 지혜, 그리고 칭찬을 나누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나누어 준 것과 하나님께 드린 것만 천국에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부요는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은 진정한 부요 속에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선택할 줄 아는 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부요를 선택하는 것이 복된 선택입니다.

### 빈곤펀데기입니까 진짜 실력자입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시대는 빈곤펀데기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진짜 영적 실력이 있는 신앙인지를 구분합니다. 영적 실력이 없이는 팬데믹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이끄는 낙심이나 염려는 단순히 환경과 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실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어린 다윗은 분명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속 원리를 보면,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 반이 갑니다. 또 형들이 모두 7명이나 있으니 다 나누어주고 나면 막내인 다윗에게 돌아올 몫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목숨 걸고 양을 지켜보아야 ‘남 좋은 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싸움 실력이 좋거나 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광야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목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모든 장수들과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아는 영적 실력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은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같이 두려워 떨기만 하는 빈곤펀데기 신앙입니까? ‘기도’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뉴욕커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 목회를 해서 수십 개의 도시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일종증 증세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은퇴 하셨는데 갑자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글에 보면, 크론병 증세와 싸우는 사모님이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팀 켈러 목사님께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하자고 제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거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지요. 깜짝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실력이라는 것을 알고 또 기도의 능력도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쉽지 않은,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든, 국가와 사회의 문제든,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한 영적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여리고 특별사색예배’ 앞에서 빈곤펀데기 신앙이 아니라 다윗 같이 영적 실력을 증거 하는 믿음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바른 상처 치유



**박진우 목사**  
켈러한인제일침례교회 담임

여러분들은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처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야 상처를 바르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나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로 인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상태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에게 “너는 정말 아무짝에도 소용없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한 그 말로 인해 그 자녀는 자기의 가치, 즉 자신의 존귀함이 떨어져 버렸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항상 빌어 먹으면서 사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해 그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 즉 자신의 존귀함이 떨어져 버렸다는 느낌을 받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처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한때 유행했던 상처치유 집회에 가면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또는 무의식적인 것을 끄집어 내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저도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상처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상처치유는 심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바보 같이 이런 일도 잘 못해”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말때문에 상처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말로 인해 여러분이 정말 바보라고 여겨져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가정으로부터, 믿었던 사람들로 부터, 변화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 상처 치유에 관한 책을 읽고 상처 치유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책들의 내용이나 치유 집회는 지속적인 치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치유가 된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상처 속에 들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구절로 인해 상처가 치유

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때 항상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바울의 가치를 부여하는 분이시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신에게 부여했던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저는 이 간단한 바울 자신의 소개를 목상하다가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말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말미암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을 거부했습니다. 목회자의 자존심은 교회의 크기로부터 온다는 여기게만 드는 모든 생각들을 거부했습니다. 가정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로부터 나의 가치가 주어진다 여기는 생각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것으로만 주어진다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된 상처를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상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받는 상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받는 상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받는 상처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려고 받는 상처입니다. 나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으려고 받는 상처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받는 상처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짜 상처는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상처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이제서야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후 12:9-10)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비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축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붓음
- 머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럽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다공증,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 사명의욕과 물질 관리의 지혜

에스라 8:21-34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 1.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

이스라엘은 포로생활 중에 참혹하게 짓밟히고 학대와 멸시, 천대를 겪으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원인을 찾다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조물주의 기대와 목적에 어긋나면 비참한 신세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속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39년 전에 부강한 세력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바벨론을 쳐부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가 바벨론을 점수한 즉시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러 착취당했던 노동력의 품삯을 한꺼번에 챙겨가도록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심으로 그들 스스로 금, 은, 패물을 챙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중 오만 명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포로귀환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기 앞서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24년 뒤에 하나님의 재촉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BC 515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터에 초라하게라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유권도 없었던 서러웠던 70년간의 포로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영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해방과 독립을 이루었고, 불탄 성전도 재건됨으로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해결된 듯 보였지만 그들은 방탕하고 타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방여자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미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며 죄악을 즐기는 타락의 길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 2. 회개와 영적신앙운동을 위한 개혁

이 소식을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는 1차 포로귀환이 있고 한참 후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와 비참한 포로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나라의 문화나 문물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바벨론의 멍에와 채찍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접한 에스라는 나라가 망하고 전멸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에스라 9장 3-4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 에스라는 바사의 서기관으로 일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망에 의한 의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다사스다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지금껏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기 때문이기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와 영적신앙운동을 위해 개혁을 시도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다사스다 왕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셨기에 흔쾌히 허락을 받았으며 왕으로부터 조서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이 2차 포로귀환입니다.

에스라 7장 9-10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로만 가르치고 행함이 없다면 거짓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활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며 붙들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가져야 신앙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했습니다. 강박해진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대로 준행(準行)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3.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심

에스라가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의 내용은 에스라 7장 13-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애를 바치고 사명의욕이 불타는 준비된 사람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왕의 왕이었던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허락받았습니다. 심지어 왕의 내탕고에서까지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다사스다 왕이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조치였고, 그가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서 절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돈이 없어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여건은 세상 제왕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뒷바라지 해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수많은 재물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아다사스다 왕에게 호위병을 붙여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시며,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아다사스다 왕에게 말했다기 때문에 왕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

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스 8:21)했습니다.

결국 “정월 십이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스 8:31)했습니다. 에스라의 믿음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삼일을 쉬 후 열 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책임져 맡겼던 금과 은, 기명들을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 두목들과 레위인 두목들을 다 참여시켜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았습니다. 그 중수를 당장에 책에 기록하고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했다고 했고,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성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개혁신앙을 시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 추세에 편승하여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합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육신적 조건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까지 않기 위해 철저한 회개와 죄를 용서받은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힘쓰는 에스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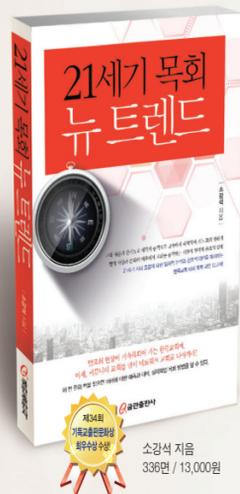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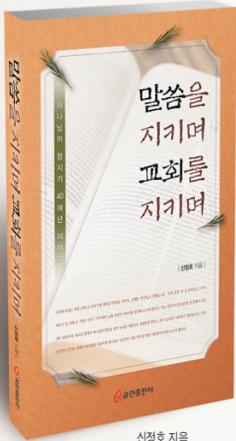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6면 / 13,000원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연세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보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년도 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원,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교보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처절한 몸부림**

# 코로나19로 완전히 달라진 세상...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미경의 리부트  
김미경  
웅진지식하우스 | 276쪽

**코로나 이후  
낯선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일과 삶과  
성장에 대해  
답하는  
최초의 책!**

코로나로 멈춘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당신의 직업과 인생을  
지금 즉시 리부트하라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  
가게 문을 닫거나  
단을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  
일이 끊기고  
수입도 줄어든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

코로나19가 2-3개월 정도만 지나면 잡힐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2차, 3차 코로나 대유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출몰할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들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필자도 몇 권의 책을 읽어 보았다. 하지만 변화될 세상에 대한 예측은 하고 있으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답을 주지 못하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인 김미경 씨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낯선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다. 그 고민 끝에 나온 책이 《김미경의 리부트》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고의 강사였던 김미경 씨의 삶은 멈춰 버렸다. 지난 28년간 강연장 연단에 서기를 쉬어 본 적 없던 그녀였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일주일 이상 강의를 원격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손쓸 방법이 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멈추어 서게 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김미경 씨는 20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오래되고 탄탄한 수익처는 그녀의 강의였다. 강의가 멈췄다는 건, 곧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졌다는 말이다.

김미경 씨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을, 직원들을 지켜낼 방법을 찾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일 변화하는 세상 구석구석을 살살이 살펴보고 단서를 채집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명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눈 붙이는 잠깐의 시간을 빼고는 단서를 찾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 적었다. 솔루션을 생각해 보는 데 하루를 모조리 썼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썼다.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결국 그녀는 코로나19는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질

서, 곧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발견하는 날, 유레카를 외쳤다.

그 후 수개월에 걸쳐 김미경 씨는 회사의 각 사업별로 리부트에 돌입했다. 정리할 것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명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순항중이다.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매달 신규직원이 입사하고 있다. 강의는 여전히 한 건도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미경 씨는 자신의 급한 불을 끄고 나서야 코로나19로 인해 자책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책이 《김미경의 리부트》다.

이 책 속에는 저자의 처절한 몸부림과 간절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 코로나19로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 있다. 이 책은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Part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 혼돈만을 읽고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미래의 질서를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다. 이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매일 조금씩 변화의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뜨거운 애착으로 각자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 Part 2.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

'리부트 공식'은 혼돈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 잡혀가고 있는 질서이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이다.

첫째, 리부트는 온택트(on-tact)다.

둘째,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해야 한다.

셋째,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일의 미래는 '인티펜던트 워커(independent worker)'

다.넷째, 이 모든 공식을 관통하는 가장 필수 중의 필수 공식이 바로 세이프티(safety)다.

### Part 3.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다. 알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내 시나리오는 내가 써야 한다. 시나리오는 확정된 시간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설계도다.

### Part 4.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평생 먹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빨리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즉시 교육'이 필요하다. 즉시 교육으로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자기 일에 즉시 적용하는 사람을 '뉴 러너'라 부른다. 즉시 배워서 즉시 내 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생존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나는 뉴 러너인가? 뉴 러너가 될 준비는 되어 있는가?

### Part 5. 공존의 철학, '뉴 휴먼' 미래를 구한다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일으킨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불신이 아닌 배려와 신뢰를 먼저 떠올리게 해야 한다. 혐오 대신 용기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른들부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네가 더 힘들지 않느냐'는 따뜻한 말 한 마디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생존, 신뢰의 생존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각자의 상실감에서, 서로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멈춰 선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이후'라는 달라진 세상에서도 우리 각자의 꿈과 삶은 또 다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아요."

### 목회자들, 처절한 몸부림으로 리부트해야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다. 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신과 20명의 직원들을 살려 보겠다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책까지 썼다.

그런데 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단지 염려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코로나19는 교회들에도 심각한 위기를 안겨다 주었다. 거리 두기 때문에 출석인원도 줄고 재정도 줄었다. 정부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타깃 삼아 규제를 하고 있어, 신뢰도마저 코로나19 이전보다 떨어졌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들도 처절한 몸부림으로 리부트해야 한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यो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생존 수영 모습. ©픽사베이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sup>up</s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드립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